가을꽃 물결속 공룡 만나고 청동기 체험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막 26일까지 24개 다양한 프로그램 14m '쥬라 파크' 포토존 등 주목

화순군이 가을 정취 가득한 꽃과 공룡, 청동기 체험이 어우러진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17일부터 26일까지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가을만화(滿花)'를 주제로 가을꽃과 청동기 체험, '고인돌 유니버스' 등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대표 가을축제로,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관광적 매력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의지다.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대 폭확대한 이번 축제는 '움직이는 공룡', '알파카 먹 이주기', '청동기 이름짓기'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황금 고인돌 전시와 14m 초대형 브라키오 사우루스가 등장하는 '쥬라 파크'는 대표 포토존 으로 주목받고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현재(가을꽃 단지)에서 청동기 시대(DM 유니버스), 쥐라기 시대(공룡 전시)로 이어지는 시간여행 콘셉트의 미션 이벤트도지해되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화순하니움 공설운동 장 특설무대에서 '제44회 화순군민의 날'행사와 통합해 열리며 하모나이즈, 박혜신, 나영, 임재현 등 초대가수가 출연한다.

축제 기간에는 관현악, 밴드, 마술쇼, 버스킹 등



화순군은 17일부터 26일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연다. 축제현장. 〈화순군 제공〉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매일 이어지고, 주말 'DM 콘서트'에는 하림, 케이시, 정엽, 자자, 채연, K2, 우연이, 문희옥 등 세대별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25일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18~26일 선사체험장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며, 연계행사로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18-19일), 전국국악대제전(26일)이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되며, 입장료(5000원)는 전액 화순사 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군은 종합상황실 2곳과 8 개 주차장(1980면)을 확보하고, 순환버스와 유모 차·휠체어를 비치해 관람객 편의를 높였다. 한편 이번 축제와 연계해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행사도 추진한다. 화순 대표 축제 및 지속 가능 관광지 홍보를 위해 부산 지역 언론인과 관광·등산 동호회 임원 등 20여명을 초청해 가을꽃 축제장과 화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교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올해 축제는 가을꽃과 청동기 체험, 고인돌 유니버스를 통해 재미와 정체성을 강화했다"라며 "화순적벽과 꽃강길 음악분수대, 남산빛공원 등 지역 명소와 함께 즐기며 화순 농특산물 소비에도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샤인머스캣'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베트남・캄보디아 수출 상차식

함평군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샤인머스캣 수 출을 본격화하며 국제시장 공략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해보면 함평꽃무릇수출포도영농 조합법인(대표 김용오) 농장에서 샤인머스캣 수 출 상차식을 열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수출을 시 작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DHI그 룹(대표 안효선)이 해당 농장을 방문해 품질을 확 인한 뒤 체결된 계약의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까 지 매주 320kg씩 차례대로 수출할 예정이다.

수출하는 샤인머스캣은 평균 당도 17브릭스 (Brix) 이상의 포도로, 해외 고급 소비자층을 겨

냥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함평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고급 소비층을 대 상으로 한 시장 공략과 일반 소비시장 확대를 병행 하는 '이원화(2-Track)'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함평 샤인머스캣의 고급화와 대중 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동남아 시장 내 입지를 더 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수출은 꾸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며 해외 소비자들과 신뢰를 구축한 노력의 결실"이라 며 "앞으로도 함평 농산물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 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최근 문을 연 장흥 천관농협 농기계서비스수리센터.

장흥 천관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문 열어

대덕읍 연지리에 180평 규모 신축

장흥 천관농협이 기계화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서비스센터'를 건립해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천관농협은 최근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에 자체 예산 8억원을 들여 180평 규모의 '농기계서비스 (수리)센터'를 갖추고 각종 농기계수리와 부품을 제공하는 농업인 편익사업을 펼쳤다. 이 농기계서비스센터에는 정비 전문인력 4명 이 상주해 주·휴일 없이 연중 상시 근무체제로 콤 바인, 트랙터, 애치기, 이양기 등에 수리와 함께 부품교체를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서비스하고 있다

김외중 천관농협조합장은 "조합원의 농기계사 용 효율성을 높이고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전국 최초 '공익형 태양광' 시작…'햇빛연금' 실현

공공 유휴지 태양광 수익 공유 전남도·한전KDN 등과 협약

나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이 사업은 발전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나주 햇빛연금' 실현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전남도와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함께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전남 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조에 발맞춰 추진했 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사회 이익 환 원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의미 가 있다.

협약에 따라 나주시는 공공이 보유한 주차장, 하수처리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해 그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참여·상생형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주민 참여형 투자 외에도 한전 KDN의 SPC 설립(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마련하

나주시는 부지 임대료와 발전사업 잉여 수익을 '나주 햇빛연금'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 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발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전국 최초의 참여·상생형 모델"이라며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부과분…최대 80%

강진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하다

감면 대상은 강진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 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 업이며, 도로·공원·하천·사용료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분이다.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최대 80% 감면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가로 부과한다.

또 해당기간 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

강진군은 전통시장 및 관광지 위탁시설 등 주요 군유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10월까지 확정하고, 11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 로 환급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 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통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